

□ 일본 은행업계의 대통합¹⁾

- 지난 3월 13일 발표된 三和-東海-아사히 은행의 통합 합의 발표를 계기로 일본의 은행업계는 '4대 그룹 체제'로 바뀔
- 향후 일본 은행업계는 차별성을 모색하고 제2 금융권의 통합·정리를 추진할 것임
- 日本發 세계 금융산업의 구조 변혁 가속화에 따라 국내 은행업계도 대형화가 불가피할 전망

○ 은행 대통합을 통한 4대 그룹체제 구축

- 三和·東海·아사히은행이 통합을 합의
 - 三和은행과 東海은행, 아사히은행 등 3개 은행은 3월 13일 2001년 4월 공동으로 금융 지주회사의 설립, 사업 통합 등에 관해 합의하였음
 - 통합후 총자산 103조 엔이며, 이는 이미 합병 합의한 住友은행·사쿠라은행 연합을 상회하여 일본내 제2위, 세계 제2위의 거대 은행이 될 것임
 - 이번 三和·東海·아사히은행 통합 계획은 일본내 대형은행 재편 작업의 완결판으로 평가되고 있음

< 三和-東海-아사히 은행의 통합전 외형 규모 >

	三和은행	東海은행	아사히은행	합계
총자산(조 엔)	45.96	29.52	28.22	103.69
수신고(조 엔)	34.57	20.38	21.85	76.80
대출금(평균 잔고, 조 엔)	30.89	18.31	30.64	69.84
자기자본비율(%)	12.14	12.70	11.92	-
공적 자금 투입 규모(억 엔)	7,000	6,000	5,000	18,000
종업원수(명)	13,779	11,162	12,642	37,583
점포수(해외지점, 점)	336(16)	285(16)	376(12)	997(44)
영업순익(억 엔)	3,100	2,000	1,500	6,600
주요 주주(상위 5사)	日本생명 大同생명 明治생명 住友신탁 도요타自	도요타自 千代田 일본생명 豊島(株) 第一생명	第一생명 千代田생명 安田생명 朝日생명 日本생명	-

1) 이 글은 「最後の都銀再編-三和·東海·あさひが統合へ危機感が生んだ巨大リテイルバンク」(週刊東洋經濟, 3월 25일)를 정리한 것임

- 4대 대형 은행그룹의 탄생

- 이로써 일본 은행업계는 日本興業은행 · 第一勸業은행 · 富士은행의 ‘미즈호’ 금융그룹, 三和 · 東海 · 아사히은행, 住友 · 사쿠라은행, 東京미쓰비시 은행 등의 4개 은행그룹 체제로 바뀜
- 이들 4개 그룹은 관련 신탁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과 그룹화될 전망으로 21세기의 새로운 금융그룹의 모습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신탁은행의 편입, 생손보과의 제휴 관계 설정 등도 진전
- 또한, 이는 1996년 東京미쓰비시 은행의 합병 발표 당시의 ‘10개 도시은행 체제’에서 ‘4대 은행 업계 구조’로의 재편을 의미하기도 함

- 대형 합병의 배경

- 이는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대형화 · 겸업화와 사이버 बैं킹화 추세에 따라, 일본 은행들도 국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
-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형 합병의 움직임은 고객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익력을 높여 정보기술(IT)의¹⁾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함

○ 일본 금융산업의 구조 재편 촉발 예상

- 은행 업계의 차별화 전략에 의한 구조 변화

- 각 은행그룹은 서로 다른 특징과 차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 ‘미즈호’ 금융 그룹은 수도권에 지역 기반을 두고, 강점인 투자은행 업무에서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추진해갈 전망이다
- 東京미쓰비시은행이나 住友 · 사쿠라은행 등은 많은 기업과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영업에 대한 강점을 활용한 글로벌 बैं킹의 강화 예상
- 三和 · 東海 · 아사히은행은 중소기업 및 개인 상대의 소매 영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東京-오오사카-나고야 3대 도시권에 강력한 영업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방은행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기반을 확대해갈 계획임

1) 三和-東海-아사히은행의 경우 IT관련 투자 비용의 단순 합계가 약 1,100억 엔이었으나, 이번 통합으로 300억-500억 엔의 투자 삭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일본의 4대 은행그룹별 경영 현황 비교 >

	‘미즈호’ 그룹	三和・東海 ・아사히	住友・사쿠라	東京미쓰비시
총자산(억엔)	134.8	103.8	99.5	68.1
국내 점포수(점)	680	950	760	320
부실 채권(조엔)	4.8	2.8	3.6	1.8
공적 자금(조엔)	2.5	1.8	1.3	0
영업순익(천억엔)	7.8	6.6	6.8	4.1
영업 강점	투자은행업무	중소기업・ 개인 영업	대기업 기반	대기업 기반 국제영업

자료: 日本經濟新聞(2000년 3월 15일자).

주: 업무 순익은 2000년 3월기 예측, 나머지는 99년 9월말 현재 수치임.

- 은행 대통합에 의한 제2 금융권 자회사의 연쇄 통합 예상

- 일본의 은행그룹들은 대부분 2개사 이상의 제2 금융업종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설립에 의한 영업망 조율과 연쇄적인 통합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또한,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지향하는 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일본 금융회사들이 기존에 内外 금융회사들과 맺고 있는 다양한 제휴 관계도 핵심 자회사나 지주회사에 의해 흡수・통합될 것임
- 이에 따라, 신탁은행, 보험, 증권 등 개별 금융회사는 업종별로 고객 기반이 되는 소득 계층별・지역별 영업 기반의 확대가 지향되고 경쟁 구조의 재편도 유발될 것임

< 대형 은행그룹화에 의한 제2 금융권의 통합 구도 >

은행	신탁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미즈호’ 그룹	安田 第一勸業富士	野村・興銀・富士 第一勸業	安田・富國・朝日 第一	安田・日動・日産 大成
三和・東海・ 아사히	東洋	스바사・東海丸万 東京	大同・太陽・千代田	日本화재・興亞화재
住友・사쿠라	住友・三井・ 中央	大和증권그룹 사쿠라프렌드	住友・三井・日本	住友・三井・同和
東京미쓰비시	三菱・日本	國際	明治	東京海上・日新화재
大和	-	코스모	東京	富士화재

자료: 일본 「週刊東洋經濟」(2000.3.25).

- 해외로부터 지적된 일본 은행들의 향후 과제

- 미국 신용평가회사 S&P의 由岡隆正씨는 외국계 은행과 일본은행의 합병의 차이에 관해 일본은행의 경우 발표에서 합병이 발족하기까지 기간이 길게 걸림
- 구미의 은행은 발표후 반년 이내에 발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합병후 점포 통합이나 인원삭감의 스피드도 크게 다르다고 지적함
- 이번 三和・東海・아사히의 통합에 대해서도 종래 구조를 바꾸는 데에 스피드감이 없으며, 이번 발표 내용만으로 보면 우선 공동 지주회사 설립을 내세우고 전략적 비전 책정은 뒤로 미루어진 인상이 강하다는 평가임

○ 한국 금융산업에 주는 시사점

- 日本發 세계 금융업계의 재편 가속화 예상

- 일본 은행업계는 4대 그룹체제로 정리됨으로써 장차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력의 구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이는 세계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 이에 따라, 국내 은행업계도 세계적인 新금융산업 재구축의 흐름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 대형 은행의 육성을 통한 금융개혁 선도

- 은행의 대형화 작업이 업계 자율적 선택을 전제로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대형 은행이 선도하는 제2 금융권의 구조 재편도 가능해질 것임
- 또한, 대형 은행의 육성을 통해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에 의한 은행-증권-보험 등의 업종간 경쟁이나 인터넷 혁명에 의한 금융업-비금융업간 경계의 파괴 현상에도 시장 자율적인 수용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임

(임진국)